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의 동태적 측면에 관한 연구

A Study of Dynamic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Community Building Projects in Korea

전대욱* · 김혜인** · 김건위***

Dae Uk JEON · Hye Ihn KIM · Kun-Wee KIM

Abstract

Recently, Community Rebuilding Projects (hereinafter CRPs) in Korea have been driven and motivated by community inhabitants by themselves, and highlight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overcome the limitation revealed normally in top-down projects of community vitalization by the Government. The CRPs encourage community-lead development because it happens to integrate multiple stakeholders and to help inhabitant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CRPs by accumulating and enlarging social capital and network among inhabitants, and the social gain consequently raises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in revitalizing communities. In this study, the series of Causal Loop Diagrams (CLDs) is to be elaborated and the System-Thinking (ST) approach is to be presented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residing in the above development process of rebuilding communities. The ST approach refers to the CLDs analyzing 19 remarkable Korean CRP cases, and leads to a conclusion including some of policy instruments to support the bottom-up CRPs in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a theoretical framework to understand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revitalization as well as empirical suggestions to respond to the issues of the CRP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Keywords: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지원정책, 주민참여적 혹은 주민주도적 지역발전, 사회적 자본, 지역공동체 활성화
(building community, support policy fo community rebuilding, community-participatory 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social capital, community revitalizati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dujeon@krila.re.kr)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강사(omar75@chol.co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cigma@krila.re.kr)

I.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지역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주민주도적 발전의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적 특성(dynamics)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의 국내 유명 성공사례 19개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된 각 사례별로 연성 시스템 다이내믹스(Soft System Dynamics)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민주도적’ 혹은 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의 표현인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장기적 발전과정을 감안한 육성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1960년대 미국 MIT의 Sloan School이 중심이 되어 논의를 거듭해 온 방법론으로서, 문태훈(2002)은 이를 “동태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의 시각으로(dynamic feedback perspective)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하여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 나가는지를 컴퓨터상에서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자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준거틀(‘framework’)”로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SD)는 연성SD(軟性, Soft SD) 및 경성SD(硬性, Hard SD)으로 구분되는데, 정량적 엄밀성과 수치예측에 초점을 둔 경성SD와 달리 질적 방법론과 질적 피드백 행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연성SD로 분류하며 이러한 접근법을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라고 칭하였다(Sternman, 2000: 4-5; 김동환, 2004).

연성 SD는 분석논리가 경성 SD에 비해 귀납적이며, 분석의 범위가 넓고 과정중심의 연구에 적합하다. 분석의 범위는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하에서 특수한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며, 풍부한 상황적인 요소와 과정에 대한 고려를 통해 분석대상간의 관계의 형태(pattern)를 대상으로 제한되지 않은 풍부하고 복잡한 인과관계의 규명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숫자화된 데이터나 숫자화되기 어려운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료의 모집과 분석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동적 행태에 대한 서술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문태훈,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분석과 같이 개별 마을공동체의 동태적 발전과정을 대상으로, 자료의 확보나 측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른 복잡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본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과정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성공적인 개별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검증결과를 참조하여, 마을공동체의 동태적 변화과정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장기전략 및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된 방법으로 연성 SD

의 주 방법론인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의 도출 및 이를 통한 시스템 행태의 동태적 추론 및 행태분석(System Thinking)을 시도한다. 특히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는 개별 요인들에 대한 동태적 인과관계의 연결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한 동태적 전개과정의 원동력을 피드백 루프에 의해 표현하는 일종의 개념적 모형(Mind-map model)으로서, 연성 SD의 경우 이로부터 동태적 행태에 대한 추론(System Thinking)을, 나아가 가능한 경우 경성 SD의 경우 이로부터 연립미분방정식(Simultaneously Differential Equation System)을 도출하여 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특정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모형의 동태적 작용과정을 극대화 혹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주요 동역학 작용(feedback chains)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분석을 제시한다.

II. 주민 혹은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지역주민 혹은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Atkinson & Willis, 2006). 지역공동체 개발에 있어 중요시 되는 과제로는 무엇보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간 격차를 줄이는 일일 것이다. 지역공동체간에 발생하는 격차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 및 지역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발전에 주력한 산물로 볼 수 있다.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개발사업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면서 각 공동체의 조직적·인적 그리고 경제적 역량의 차이에 따라 각 개발사업의 규모와 질의 격차가 커졌다는 시각이 일반적일 것이다(한상일, 2003). 이 같은 격차는 상향식(Bottom-up) 지역 발전으로 전환되는 오늘날 보다 심화되어 지방행정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제도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즉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의 이익은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과대대표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공동체의 이익은 과소대표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같은 이익의 비대칭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간 격차를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발전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지역공동체 개발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성격이 규정된다. Kretzman & McKnight (1993)의 공동체개발 입문서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에 따르면 공동체의 궁극적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공동체가 지닌 자산에 근거한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지역개발 및 소비중심의 공동체 발전과 차별화된 것으로 욕구중심

적 지역공동체와 대조된 공동체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산중심적 접근에서 자산을 제공하는 주체는 개인·조직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자산중심적 접근은 욕구중심적 접근(need-based approach)¹⁾과 반대로 외부의 도움 없이 지역공동체가 가진 자신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자산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개발하면서 공동체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한 개발 및 참여과정을 통해 공동체 비영리 조직이 지역의 자산을 탐색하고 조직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참여의 기능을 도구적 기능(instrumental) 기능과 가치 창조적(constitutive) 기능으로 나눌 때 그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실현되는 장이 바로 공동체 조직인 것이다(Cooper & Musso, 1999).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에서의 지역공동체 발전 모형은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오고 있다(김형용, 2008). 미국은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서민주택 공급, 인적자본 개발 등 지역사회의 자산형성을 목표로 “지역개발법인(CDCs)”이 대두되었다. 지역개발법인의 주요사업은 서민주택 개발 및 보수·관리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공동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개발 전체적인 범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지역개발법인은 2005년에는 4,600여개 이상이 존재할 정도로 미국의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중심체로 자리 잡았으며, 외부 매개기구의 운영지원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지역개발법인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개발의 변화된 모형으로 “주민주도적 개발지역(혹은 권한이전 지역) 및 기업마을”(Empowerment Zones and Enterprise Community), “포괄적 지역사회 변화운동(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등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지역공동체는 다음과 같이 발전되어 오고 있다(이종수, 2008). 한국은 1960년대 초반 부산의 신용협동조합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브리엘 수녀가 시작하고 가톨릭에서 지원하여 서민의 신용금융조합으로 발전하였다. 이어 1970년대에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시지역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1980년대에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기초한 지역운동, 각 지역에서 벌어진 생협협동 운동, 환경과 생태공동체 운동이 행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실시되었다. 첫번째는 공공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의 주도적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하향식(top-down) 지역사회형성론이며, 나머지 하나는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향식(bottom-up) 지역사회형성론이다.

1) 욕구중심적 접근은 공동체의 문제점 그리고 결여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가 갖지 못한 것을 외부에서 끌어오는 방식을 의미함

〈표 1〉 지역공동체 발전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이종열 외 (2005)	울산광역시 강동권 개발사례, 민주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사 반영, 전문성·효율성 추구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는 개발, 지역주민의 생활터전 확보를 염두해 둔 개발, 친환경 개발과 지역마케팅을 활용한 개발방법 모색
최승호 (2009)	충남 홍성군 풀무마을 사례, 다양한 소득원 개발 및 생협 소비자 조합원 확대 중요 마을 전체조직 및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치행정사무국 또는 센터 설치, 고령 농민이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의 수반 중요
구분영 (1999)	계획공동체 주장, 그 유형을 생태적·아파트·생협 공동체로 제시, 그 중 생협공동체를 성공적인 계획공동체로 평가
김종숙 (1998)	충남 홍성군 풀무지역 공동체 사례 다종의 자생적 조직의 발달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킴으로 공동체가 결속하게 해준다고 주장 자치단체 지원 및 자생조직 연계를 통한 지원 강조
이일열·박문규 (2011)	대전 근교 정병이 마을 사례 지역 이미지를 녹색관광과 연계하고 여가 관광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
최경은 (2006)	경기도 이천 부래미 마을 사례 지속적 참여, 특히 참여학습 주체들의 학습네트워크 중요 마을 내·외부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
김진모 (2009)	전북 입실 박사골 사례 자연적·역사적 특성에 기초한 사업 발굴, 주민주도를 통해 마을 재구성하여 주민들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정주여건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마을리더 양성 및 지방정부의 협조 중요
이흥택 (2012)	서울 성미산 사례 지역사회의 요구 잘 반영, 사회자본의 구축, 출자자를 모집하여 출자금확보, 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 구성원들이 공동목표를 형성하여 사업반영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하향식으로서의 정부주도와 ② 상향식으로서의 민간주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주도의 경우 ㉠ 자립형, ㉡ 파트너십형(주민-전문가 융합형), ㉢ 거버넌스형(주민-정부-전문가 협력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주도에서 첫 번째로 자립형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 고취 및 집단효능감²⁾, 공동체 삶의 활성화 및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주민 스스로

2) 효능감(efficacy)의 개념은 개인 및 집단의 성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효능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혹은 믿음을 의미함(Bandura, 1986; 이세규, 2010). 효능감은 신념 소유의 주체에 따라 ① 자아효능감(self-efficacy)과 ② 집단효능감(collective-efficacy)으로 구분됨. 특히 집단 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역량에 대한 집단구성원간의 공유된 신념으로 규정할 수 있음(유경화·신원형, 2003;

가 참여하고 주도하며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에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파트너십형은 주민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주체가 되나 활성화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전문가는 컨설팅이나 교육·지원 및 법인 등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세 번째의 거버넌스형의 경우, 주민이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이나 정부지원 등 공동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조언을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각 주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다양한 유형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 내 여러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하향식의 지역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역공동체로 묶어 내고 발전 시킴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등 공동체 경제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Ⅲ. 분석대상 사례선정 및 개요

주민 혹은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에 대한 모델링과 모델에 기초한 시스템 사고를 통해 적절한 정책전략의 도출을 위하여, 주민 혹은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 중 검증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 사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수사례의 선정기준으로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사례 분석을 위해 3년 이전 중앙부처의 우수사례로서 수상경력이 존재하고, 최근 5년간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물부, 산림청, 각 자치단체 등 주요 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혹은 학술논문 및 관련문헌 등에서 우수사례로 언급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19개의 사례를 추출하였다.

선정된 19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기호는 이하의 장에서 인과지도 모델링의 번호임). 경북 의성군 칠성쌀경영체(CLD 1-1),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CLD 1-2), 대전 유성구 백세밀영농조합(CLD 1-3), 강원 삼척시 북동아리마을(CLD 1-4), 충북 단양군 한드미유통영농조합 및 강원 화천군 토고미마을(CLD 1-5), 전북 임실군 치즈마을(CLD 1-6),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민들레공동체), 경남 남해군 두모마을, 전북 부안군 등룡 에너지자립 마을(이상 6개 사례 CLD 2-1),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및 전북 부안군 변산공동체(이상 6개 사례 CLD 2-2), 충남 서천군 산너울마을, 경남 창녕군 성곡친환경마을 및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이상 3개 사례 CLD 2-3), 전북 임실군 박사골마을(CLD 2-4), 충북 괴산군 미루마을(CLD 2-5), 충남 홍성군 풀무지역공동체(CLD 2-6)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히 주민의 공동생산 등 협력에 의한 수익창출이나 기타 성과가 창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표 2>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자료특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분량이 방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고, 전대욱 외(2012: 52-85)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 참고하기 바란다.

<표 2> 우리나라의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례특성(19개 중심)

구분	철성쌀 경영체	박사골 마을	안덕 마을	중금 마을	성미산 마을	산너울 마을	미루 마을	임실 치즈 마을	복동아 리마을	성곡 친환경 마을
구성	○	○	○	○	○	○	○	○	○	
설립원인	○	○	○	○	○	○	○	○	○	○
목적	○	○		○	○	○	○	○	○	○
추진사업	○	○	○	○	○	○	○	○	○	○
추진방향	○	○		○		○	○			○
수익배분										
구분	변산 공동체	정뱅이 마을	풀무 공동체	갈전 마을	등룡 에너지 자립	한드미 유통 조합	토고미 마을	백세밀 영농 조합	두모	
구성	○		○	○	○	○	○	○	○	
설립원인	○	○	○	○	○	○	○	○	○	
목적	○	○	○	○	○	○	○	○	○	
추진사업	○	○	○	○	○	○	○	○	○	
추진방향		○	○	○	○	○	○	○	○	
수익배분						○				

IV.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에 대한 인과지도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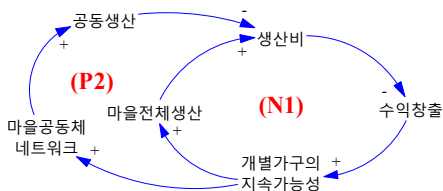
1. 마을공동체의 현안문제와 협력의 과정

앞서 제시된 19개의 사례들 중 일부의 사례들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문제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도적인 협력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사례들로 볼 수 있다. (모델그룹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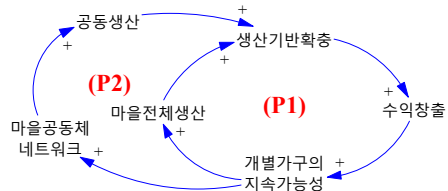
1) 경북 의성군 단북면 칠성 쌀 경영체

동 사례의 경우, 기존의 마을에서는 개별가구의 생산활동이 지속되면서 생산비의 증가로 인해 수익창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 때 공동체의 협력에 의한 공동생산 방식은 다양한 생산비 절감을 가능하게 하면서 개별가구 및 마을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동 인과지도 [CLD A-1]에서 마을전체 생산량의 증가가 생산비의 증가를 통해 수익창출에 대한 부정적인 작용[N1]을 보이는 것이 기존의 마을공동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생산 방식의 채택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개인 및 마을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협력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의 공고화 과정[P2]에 의해 새로운 긍정적인 역학관계를 창출하는 것이 마을발전의 동태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음의 피드백루프 [N1]은 “마을발전의 정체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 의한 양의 피드백루프 [P2]는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1) 협력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같은 경쟁우위의 창출이 핵심 과정이며, 2)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3) 협력의 성과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사회자본 축적의 결과가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림 1] CLD A-1: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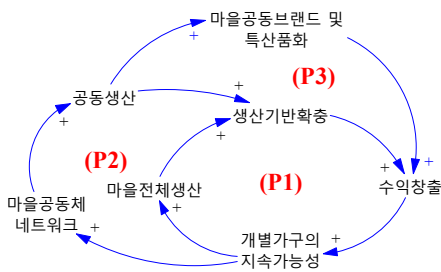


[그림 2] CLD A-2: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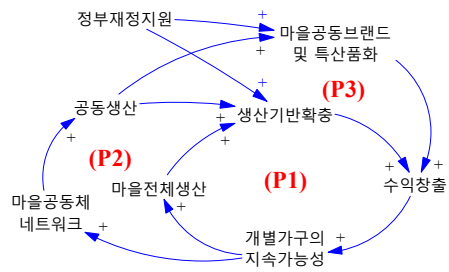
2) 전북 완주 안덕마을

동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특별한 위기요인에 대한 기술보다는 마을의 통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주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이로부터 경쟁력이 창출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과지도 [CLD A-2]에서는 기존의 “경제활동의 순환과정”으로 해석되는 양의 피드백 루프[P1]을 전제하고, 마을공동체의 협업과정에 의해 이러한 순환과정을 촉진시키고 확장시키는 기존의 양의 피드백 루프[P2]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이 핵심적인 동태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첫 번째 모델과 유사하나, 협력에 의한 경쟁우위의 창출에 있어서 생산비 절감 외에 생산기반의 확충과 같은 마을자산의 축적이 특징적이다.



[그림 3] CLD A-3: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 브랜드화



[그림 4] CLD A-4: 마을주도의 발전에 있어서 정부재정지원의 외생적 효과

3) 대전 세동 백세밀 영농조합법인

동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백세밀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생산을 통해 ‘유기농 우리밀’의 브랜드가치를 공고히 한 사례로서,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로 볼 수 있는 양의 피드백루프[P2]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을공동의 생산기반과 같은 유형적 자산에서, 마을공동의 브랜드나 특산품화 등 무형적 자산으로 확장된 사례이다.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모델과 흡사하며, 협력에 의한 성과의 창출과정의 다양성을 주목할 수 있다.

4) 강원 삼척 북동아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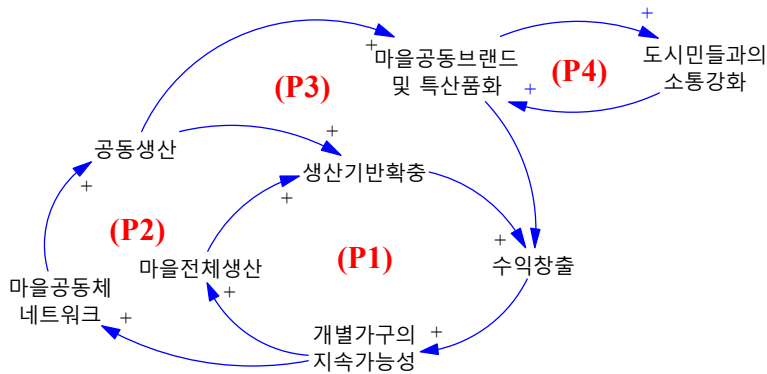
동 사례의 경우, 전술한 백세밀 영농조합법인의 사례와 동일한 발전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외생적인 촉진작용으로서 정부재정지원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재정지원의 유무에 따라 기존의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가속화 여부에 따른 정책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역작용은 현재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다. 다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부재정지원에 따른 주민간 분열, 즉 공동체 네트워크의 결속력 약화와 같은 현상들이 관측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명확한 자료에 의한 후속적인 모델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충북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 및 화천 토고미 마을

해당 2개 사례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협업에 의한 경쟁력의 창출과정에서 도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마을브랜드의 강화 및 교류확산, 지역마케팅 등 일련의 효과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로 볼 수 있는 양의 피드백루프[P2 및 P3]와 연계되어, 이를 기초로 한 추가적인 외부와의 소통 강화 등의 긍정적인 동태적 과정을 감안할 수 있으며, 이는 “창출된 경쟁력의 확산과정”을 의미하는 양의 피드백루프[P4]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주도의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협력에 의한 성과의 창출과정의 다양성 및 확산과정 등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확산지원 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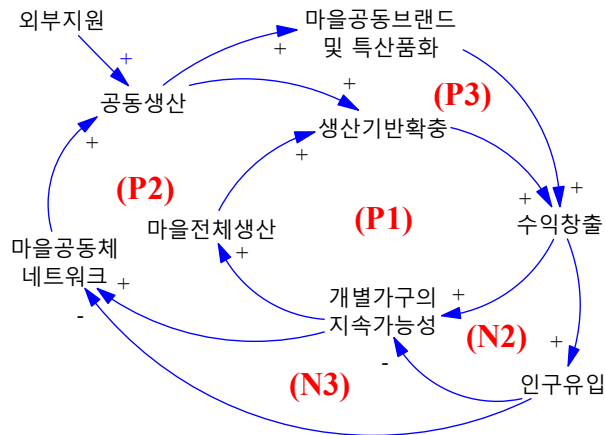
[그림 5] CLD A-5: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소통

6) 전북 임실 치즈마을

동 사례에서는 외인 신부의 초기 리더쉽 이후, 3개 마을의 젊은 세대들의 유입과 이들의 마을공동체 협력에 의한 발전과정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사회자본 모형(김혜인 외, 2009; Patterson et al., 2004; Boumans et al. 2002)에 의하면, 인구유입은 가치 및 이해관계의 다양화 등의 원인에 의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연결강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모델링에 따라 인구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정체 효과[N2] 및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작용[N3] 등을 모델구조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유입의 단기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본다면 이들이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또 다른 사례인 홍성 풀무지역 공동체 및 괴산 미루마을의 사례에서 보다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모델링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6] CLD A-6: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인구 유입

2. 마을공동체 비전과 목표공유에 기반한 성과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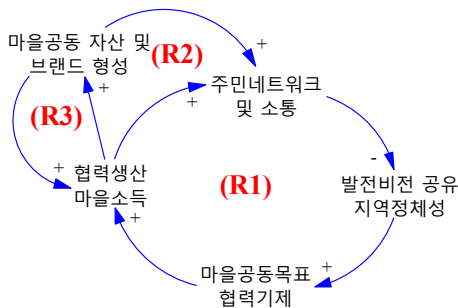
상기에서 다루었던 일련의 사례들은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체 주도적 협업과정과 그 긍정적, 부정적 작용들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의 공유에 기반한 공동목표와 성과창출이라는 공동체주도적 발전전략의 두 번째 본원적 과정에 대해 논함으로써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모델그룹 B)

1)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민들레공동체), 경남 남해군 두모마을, 및 전북 부안군 등룡 에너지자립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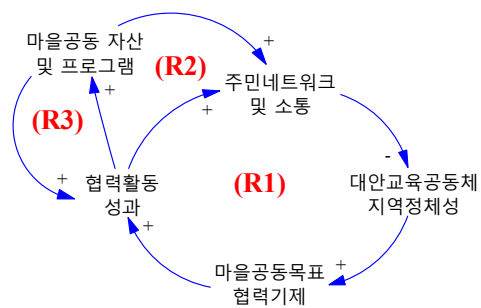
해당 4개 마을 사례들의 경우 앞서의 협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 작용관계와 달리, 이러한 협업활동의 기제로서 공동의 지역발전 비전 및 목표의 공유와 이를 통한 성과의 창출이라는 동역학적 과정이 주목할만 하다. 동 사례들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정체성 및 발전 비전에 대한 공유,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기제, 이를 통한 협력활동, 협력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 및 유무형 마을공동 자산의 축적,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신뢰 형성 및 소통의 확대 등의 과정들이 묘사되어 있다.

인과지도[CLD B-1]에서는 공동의 목표가 협력의 기제와 성과를 견인하고, 견인된 성과가 다시 신뢰형성 및 소통확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고리[R1 및 R2]가 제시된다. 이는 “공동체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태적 사회자본 축적의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협력의 성과를 통해 공동의 마을자산을 축적시키고, 축적된 자산은 다시 마을공동의 성과에 긍정적인 작용[R3]으로 피드백 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공동체의 성과와 자산의 상승작용”으로 명명할 수 있다.

주민주도의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1)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도출하는 과정, 2)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 관련된 행동들의 도출 및 추진, 3) 견인된 성과에 대한 유산으로서 축적되는 마을공동의 자산이 미치는 효과 등이 핵심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외생적 작용과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7] CLD B-1: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그림 8] CLD B-2: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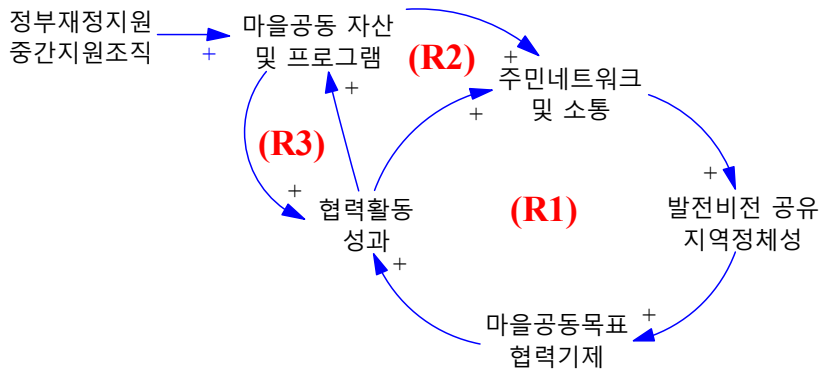
2) 서울 마포 성미산마을 및 전북 부안 변산공동체

해당 사례의 경우, 초기의 리더쉽에 의해 공동의 발전비전과 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비전은 경제적 성과의 창출보다는 교육 및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정체성의 강화와 연관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인과지도[CLD B-2]는 발전비전의 공유 및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대안교육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지닐 뿐, 본질적으로 인과지도[CLD B-1]의 경우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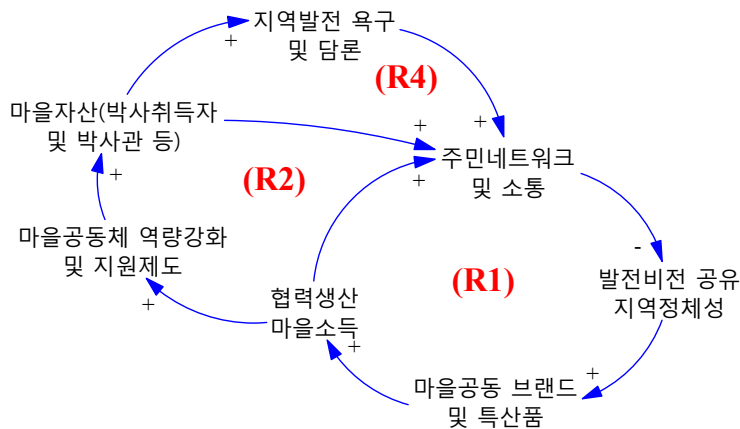
3) 충남 서천 산너울마을, 경남 창녕 성곡친환경마을 및 대전 정뽕이 마을

해당 3개 사례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혹은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개입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인과지도[CLD B-3]의 기본구조는 앞서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입 과정에 대한 외생적인 작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의 경우, 초기 공동의 비전과 목표형성을 통해 협력의 기제를 창출하고, 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개입되는 경우 성과와 관계된 물리적인 마을공동 자산의 축적이나 구체적인 마을공동의 프로그램에 관계된다.

마을공동체의 유무형 자산은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에서 협력활동의 성과로서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연결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정부재정지원의 경우 이것이 초기의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협력활동의 성과를 건인[R3]하는 것이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목표와 협력기제로 연결[R1 및 R2]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이것이 결여된 경우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역시, 협력활동이나 그에 관계된 유무형의 자산에 관한 지원보다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비전공유, 목표설정 및 협력의 기제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정책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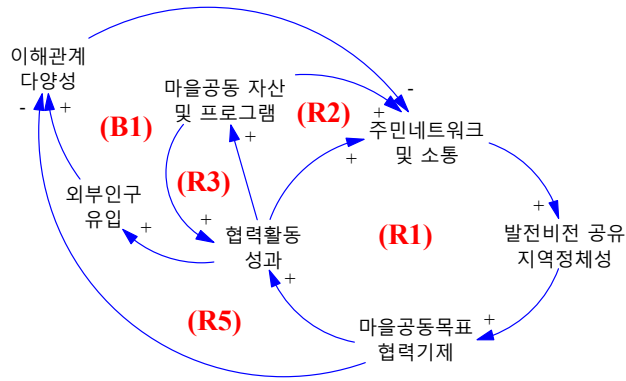
[그림 9] CLD B-3: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에 있어서 외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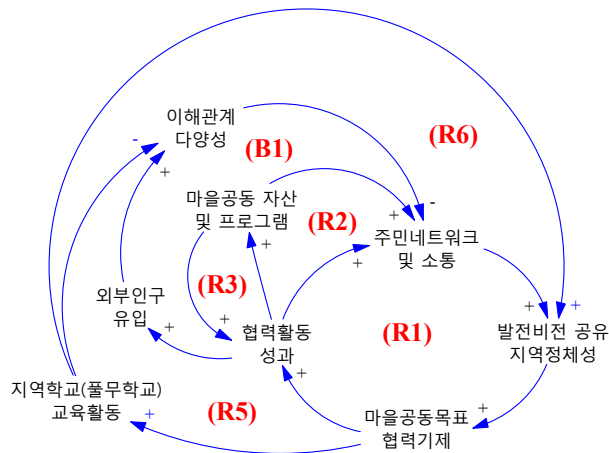
[그림 5-10] CLD B-4: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

4) 전북 임실 박사골마을

동 사례의 경우, 마을공동체 공동의 목표와 협력의 기제에 따른 협력활동의 결과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특수한 마을자원(박사학위 취득자 및 관련 지원센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촉진시키는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인적자원으로서 마을자원(박사학위 취득자와 강화된 주민역량)이 직접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과정[R4]가 새롭게 인과지도[CLD B-4]에 반영된 것 외에는 기존의 모델과 큰 차이는 없다.



[그림 11] CLD B-5: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창출시 외부인구의 유입과 공동체 결속



[그림 5-12] CLD B-6: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의 공유

5) 중복 피산 미루마을

동 사례에서는 외부에서의 주민유입이 마을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며 주민유입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의 비전과 목표, 소통과 협력의 기제가 원활히 작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외부의 인구유입은 이미 임실 치즈마을에 관한 인과지도[CLD A-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나 가치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공동체 네트워크나 소통의 형성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 인과지도[CLD B-5]에서 인구유입은 지역사회내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다양성은 소통과 네트워크 결속력을 약화[B1]시키는 새로운 인과

관계로 표현되었다.

다만 동 사례에서는 외부의 인구유입에 있어서 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 목표에 동의하는 새로운 주민들만이 유입되었으므로 이러한 인구유입의 부작용에 대한 방어기제[R5], 즉 “신규주민의 지역공동체 동화 과정”이 형성, 즉 유입인구의 공동체 목표와의 일치여부는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제거시키게 된다. 주민주도적 발전전략에 있어서, 1) 공동체 발전과정에서 인구유입이 필요한 혹은 불가피한 상황인지의 여부, 2)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정체성 및 공동의 가치에 대한 교육 및 공유 등의 정책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6) 충남 홍성 풀무공동체

동 사례와 괴산 미루마을의 사례와의 유사점은 외부의 인구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며, 차이점은 인구유입에 있어서 사전에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에 동의한 사람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에 있어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공동의 목표와 협력의 기제는 유지되고 강화됨으로써 중장기적인 마을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동되는데, 그 이유는 풀무학교와 같은 지역학교의 존재와 역할, 기능에 따른 것이다.

즉, 새로운 인구의 상당수는 풀무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에 유입되었거나 혹은 신규유입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풀무학교의 소통과 평생교육 활동의 결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소통, 공동의 가치와 목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괴산 미루마을의 사례에서 “신규주민의 공동체 동화과정”으로 명명된 조절루프[R5]에 비해, 본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주도 혹은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중요한 내재적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V. 주민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시스템 사고와 정책추진 전략

상기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동태적 인과관계 및 작용관계에 대한 규명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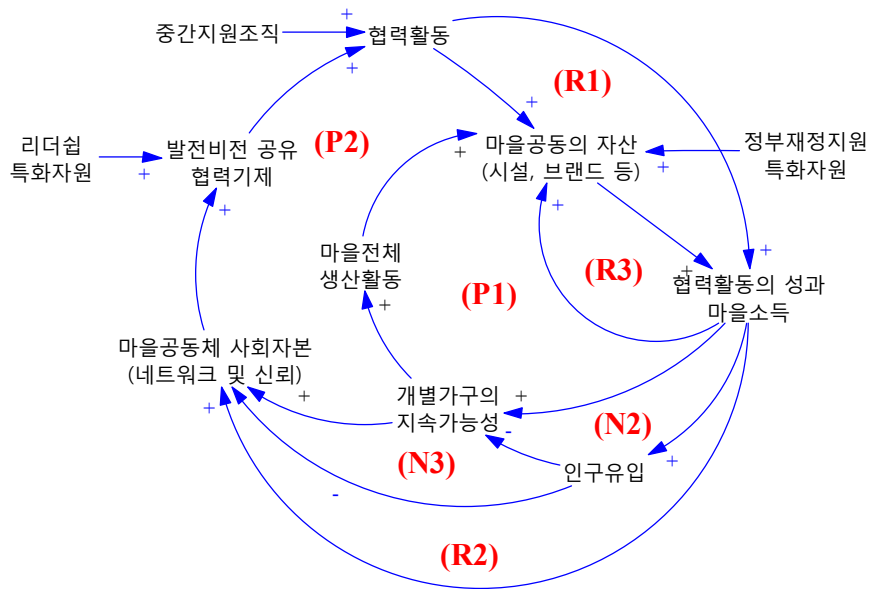
〈표 3〉 동태적 인과관계 모형(CLDs) 및 분석결과 요약

인과지도(CLDs)	해당사례	주요 동태적 작용	시사점
[CLD A-1]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비 절감	가. 경북 의성군 단북면 칠성 쌀 경영체	마을발전 정책과정[N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P2]	1)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쉽, 2)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요소, 3) 협력의 성과와 공동체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CLD A-2]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생산기반 확충	다. 전북 완주 안덕마을	마을경제 순환과정[P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P2]	
[CLD A-3]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 브랜드화	러. 대전 세동 백세밀 영농조합법인		
[CLD A-4] 정부재정지원의 외생적 효과	자. 강원 삼척 북동어리마을	마을경제 순환과정[P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P2]의 기본구조 및 정부재정지원의 외생적 촉진효과	정부재정지원 유무에 따라 기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가속화 및 부작용
[CLD A-5]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소통	너. 충북 한드미 유통영농조합법인 더. 화천 토고미 마을	마을경제 순환과정[P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P2 및 P3], 창출된 경쟁력의 확산과정[P4]	협력에 의한 성과 창출과정에서 성과의 다양성 극대화, 경쟁력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
[CLD A-6] 마을공동체 협력활동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인구 유입	야. 전북 임실 치즈마을	상기 [P1~3]외에 인구유입의 지역경제 부정적 효과[N2], 공동체 약화요인[N3]	인구유입의 부정적 효과, 관련 보완책은 [CLD B-5~6] 참조
[CLD B-1]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 창출	라. 전북 임실 증금마을 하. 경남 산청 갈전마을 머. 경남 남해 두모마을	공동체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의 선순환 고리[R1 및 R2], 공동체의 성과와 자산의 상승작용[R3]	1) 공동목표에 합의 및 도출과정, 2)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과 관련된 행동 도출 및 추진, 3) 견인된 성과에 대한 유산으로서 축적되는 마을공동 자산의 긍정적 피드백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생적 작용과 지원 등 고려
[CLD B-2] 상동	마. 서울 마포 성미산 카. 전북 부안 변산공동체		
[CLD B-3]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성과 창출에 있어서 외부지원	바. 충남 서천 산너울마을 차. 경남 창녕 성곡친환경마을 타. 대전 정방이 마을	공동체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의 선순환 고리[R1 및 R2], 공동체의 성과와 자산의 상승작용[R3]의 기본구조 및 정부재정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외생적 효과	정부지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협력활동의 성과를 견인[R3]하는 것이 가능, 중장기적으로 공동체 목표와 협력기제로 연결[R1 및 R2]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중간지원 조직 역시 공동의 목표와 협력기제 도출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임
[CLD B-4]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와 마을의 인적자원	나. 전북 임실 박사골마을	상기 [R1~R3] 외, 인적자원 축적의 공동체 결속효과[R4]	

(계속)

인과지도(CLDs)	해당사례	주요 동태적 작용	시사점
[CLD B-5] 외부인구의 유입과 공동체 결속	사. 충북 괴산 미루마을	상기 [R1~R3] 외,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공동체 결속약화[B1], 신규주민의 지역공동체 동화 과정[R5]	1) 공동체 발전과정에서 인구유입의 여부, 2)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정체성 및 공동가치에 대한 교육 및 공유 등의 정책 수단 필요
[CLD B-6] 마을공동체 공동의 비전·목표의 공유	파. 충남 홍성 풀무지역공동체		

또한 이상과 같이 전 장에서 다루었던 19개 주민주도적 발전사례로부터 추출한 다양한 동태적 인과관계 및 작용관계를 종합하여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논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발전과정 모델을 [그림 13]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3] CLD: 마을공동체 주도적 발전의 동태모형

사례분석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 마을경제 순환과정[P1],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과정[P2 및 P3], 창출된 경쟁력의 확산과정[P4] 등 마을공동체의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발전의 선순환 고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동체 목표설정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의 선순환 고리[R1 및 R2], 공동체의 성과와 자산의 상승작용[R3] 등의 공동체 내부의 사회경제적 진화과정에 대한 순작용들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인구유입의 지역경제

부정적 효과[N2], 공동체 약화요인[N3] 등의 역방향의 동태적 작용들도 제시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중간지원조직, 마을의 특화된 자원, 공동체 내부의 리더쉽 등의 주요 성공요인들이 이러한 동태적 순작용 및 역작용들을 변화시키는 매개변수 혹은 정책실험 변수로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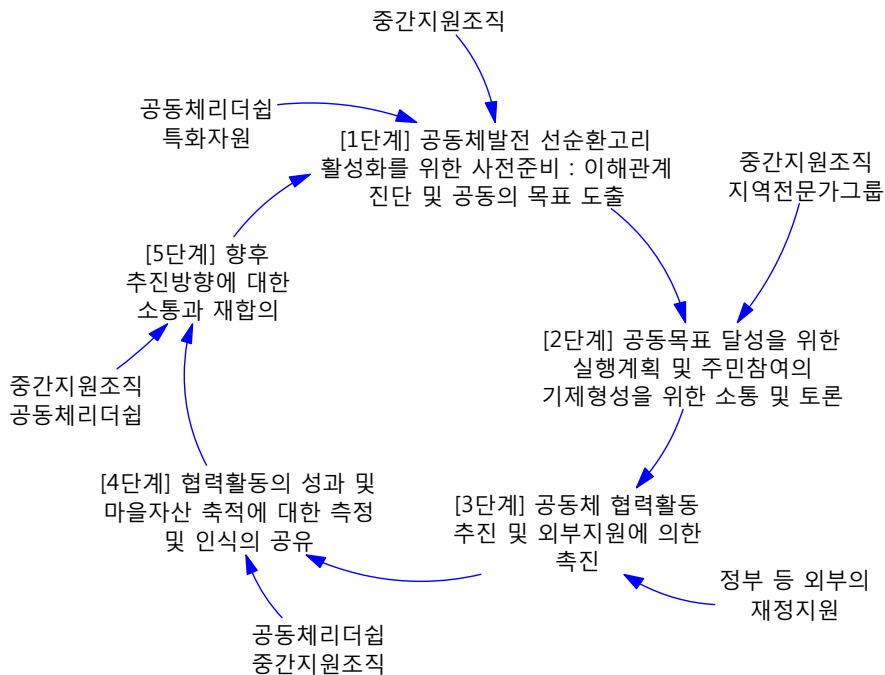
이와 같은 모형은 실증적 사례분석에 따른 귀납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탐색적이며 질적인 모형이나,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충실하게 도출되었으며 여타의 연구목적에 따라 기본구조의 변형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모형을 활용한 시스템 사고는 다음과 같다.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모형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첫째, 공동의 목표에 의한 발전비전의 공유 및 협력의 기제, 둘째, 구체적인 협력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P1~2] 및 [R1~3]의 동태적 선순환 고리에 따라 발전이 가속화되는 과정을 따르게 되며, 인구유입에 따른 조절작용[N1~2] 등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P1~2] 및 [R1~3]를 구성하는 주요 인자들의 동태적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내발적인 발전과정으로부터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활성화가 가능하나, 주요 선순환 고리의 작용인자가 약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P1~2] 및 [R1~3]로 제시된 선순환 고리가 지역발전 과정에서 “지배적 피드백 루프(Dominant Feedback Loop)”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공동체 협력활동의 결과가 공동체의 네트워크나 신뢰에 미치는 작용이 크지 않은 경우 선순환 고리의 상당부분이 작용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 마을시설 등 마을자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내의 리더쉽과 자원을 활용한 공동의 목표형성 등을 기점으로 한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간지원 조직이 이러한 시발점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체계를 작동시켜야 하며, 필요시 지속적으로 마을의 단계별 목표와 소통을 원활히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동태적인 과정에서 지역공동체의 발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역시 물리적 자산에 대한 지원 혹은 협업의 성과창출 단계의 가시적인 지원이 주류를 이루는 바, 마을공동체의 공동의 목표와 협력의 기제, 소통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발전단계에서 선순환 고리들이 지배적 피드백 루프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추진 전략

본 논문은 주민주도 혹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19개 사례에 대한 시스템 모델링을 제시하였고, 사례별로 발전과정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발전과정 유형에 대한 시스템 사고를 통해 주민주도적 혹은 지역공동체 주도적인 발전전략의 수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주도성이 갖는 동역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주도성을 훼손하지 않는 일련의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큰 공헌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본 논문은 시론적 연구로서, 보다 많은 사례와 발전과정에 대한 실제적 모델링 과정을 통해 보다 일반화되고 정량적인 분석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그림 14] 중장기적 주민주도적 발전과정의 추진 및 지원전략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시스템 사고를 통하여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원전략을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이 중장기적으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림 14]와 같이 단계별 지원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간지원조직 혹은 마을리더에 의한 선순환고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이해관계 진단 및 공동의 비전과 목표설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공동체의 공동의 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내부의 리더쉽과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 공동체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공동의 목표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방안, 참여확대 기제의 설정을 위한 다양한 지역공동체 내부의 소통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혹은 지역전문가그룹에 의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협력활동에 대한 적극적 추진 및 정부 등 외부지원을 통한 발전단계를 촉진하여야 한다. 정부재정지원의 경우 지역공동체 단위로 발전단계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별로 필요에 맞는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넷째, 협력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로서 축적된 마을공동의 자산에 대한 인식과 공유를 통해 일치된 공동체의 활동의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사소통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목표의 수정, 필요시 중간지원조직 등 외부의 지원에 의한 현황의 진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주민의 재합의 단계로 4-5단계에서 공동체의 리더쉽에 의한 적극적 추진 혹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절차들로 구성된 주민주도적 발전과정과 정책적 지원방안들은 환류를 통해 다시 새로운 발전전략의 형성에 기여한다.

【참고문헌】

- 구본영. (1999). “우리나라 계획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24(1): 303-326.
- 김동환. (2004).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서울: 선학사.
- 김종숙. (1998). “자생적 지역공동체와 발전 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 9: 263-290.
- 김진모. (2009).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사업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임실 박사골권역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윤 · 김진영. (2011).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김형용. (2008). “미국 지역사회개발 동향과 지역개발법인(CDCs)”.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봄호('08. 3): 95-110.
- 김혜인 · 전대욱. (2009). “지속가능발전 모델링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도입: 세 편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에 대한 제언”.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0(3): 25-45.
- 문태훈. (2002). “시스템다이내믹스의 발전과 방법론적 위상”.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3(1): 61-77.
- 송영필 · 박용규. (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원 SERI Issue Paper 2005년 4월 1일자.
- 유경화 · 신원형. (2003). “경찰조직에서 리더십 유형과 객관적 조직 성과간의 관계: 집단효능감의 매개역할”. 『한국행정학보』 37:(3): 379-397.
- 이세규. (2010).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2): 163-184.
- 이일열 · 박문규. (2010). “이미지 연출을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웰빙, 녹색 관광 개발 가능성 연구: 대전지역 사례”. 『한국관광학회 2010 대전국제관광학술포럼 및 워크숍』 2010. 4: 17-27.
- 이종수. (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 이종열 · 이재호 · 변일용 · 김인. (2005). “주민중심적 지역개발 전략: 울산광역시 강동권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3): 139-153.
- 이홍택. (20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사례로』. 강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 임경수. (2009).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발표자료집』.

-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maeul.or.kr).
- 전대욱 · 최인수 · 박승규. (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10(제467권).
- 최경은. (2006). 『현대 한국사회의 지역축제 현황과 분석』. 유럽사회문화연구소.
- 최승호. (2009).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충북발전연구원.
- 한상일. (2003).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보』 37(3): 159-180.
- Asian Development Bank. 2008. Community-Driven Development and Strategy 2020. Manila, Philippines : Asian Development Bank.
(<http://www.adb.org/Documents/Participation/Brochure-CDD.pdf>)
- Atkinson, R. & P. Willis (2006), “Community Capacity Building . A Practical Guide,” Paper #6 Housing and Community Research Unit, School of Sociology and Social Work, University of Tasmania, Australia.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Special Issue: Self-Efficacy Theory in Contemporary Psychology, 4: 359-373.
- Boumans, R., R. Constanza, J. Farley, M. Wilson, R. Portela, J. Rotmans, F. Villa, M. Grasso (2002), “Modeling the dynamics of the integrated earth system and the value of global ecosystem services using the GUMBO model.” Ecological Economics, 41: 529–560.
- Cooper, T. L., & J. A. Musso (1999), “The Potential for neighborhood council involvement in American metropolitan governance,” 2(1/2)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Theory and Behavior 199-232.
- Dongier, P., J. Domelen, E. Ostrom, A. Rizvi, W. Wakeman, A. Bebbington, S. Alkire, T. Esmail, and M. Polski, (2002). “Chapter 9: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In J. Klugman (Ed.), A Sourcebook for Poverty Reduction Strategie Volume 1 - Core Techniques and Cross-Cutting Issues, Washington, D. C.: World Bank.
- Kretzmann, J. P., & J. L. McKnight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 Chicago, IL: ACTA Publications.
-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Paris: OECD.
- Patterson T., T. Gulden, K. Cousins, E. Kraev (2004). “Integra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 dynamic model of tourism in Dominica.” Ecological Modeling 175:

74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4권 제3호 2013. 10

121－136.

Sternman, J. D. (2000),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Irwin McGraw-Hill International.

▶ 접수일 : 2013. 6. 30. / 게재확정일 : 2013. 10. 17.